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46호 / 08월 1일

금년 상반기 중국 대외무역 현황과 하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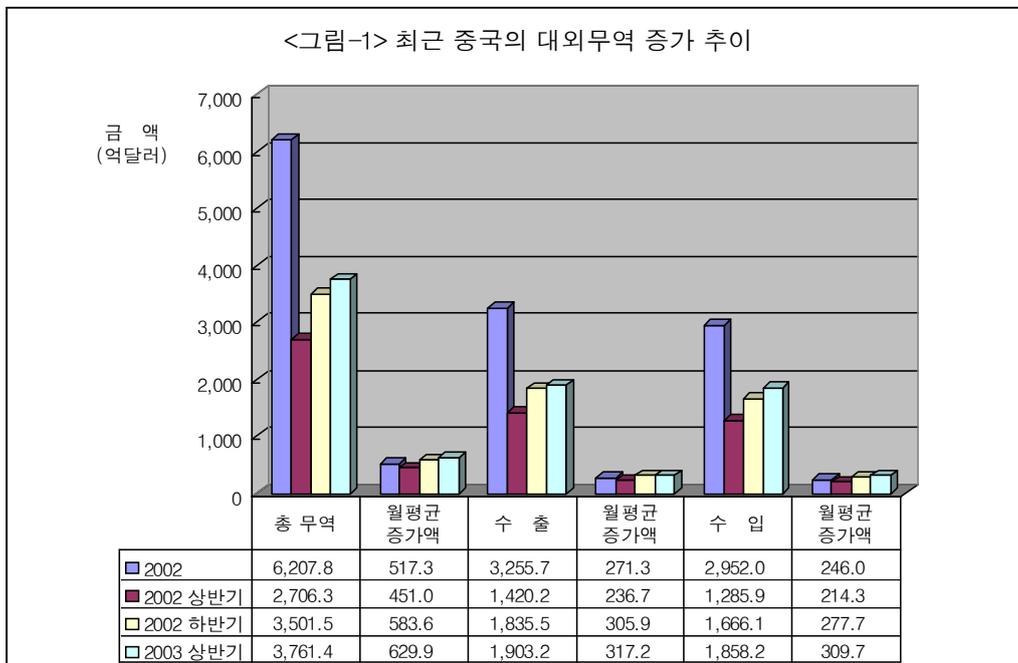
1. 개요

- 중국의 2003년 상반기 대외무역액은 사스(SARS)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美달러 가치의 하락, 중국의 관세인하 확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9.0% 성장한 3,761.4억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수입증가율(44.5%)이 수출증가율(34/0%)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무역흑자 규모는 2002년 상반기(134.2억 달러) 대비 66.5% 감소한 45억 달러에 그침.
- 금년 하반기 무역은 사스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반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월평균 무역액은 상반기의 그것(629.9억 달러)보다 많은 700억 달러를 기록하여 금년 전체로는 무역액이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3대 교역국인 미·일·EU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도 중국과 3대 교역국 간 무역액도 각각 1,100억 달러, 1,200억 달러, 1,100억 달러에 달해 모두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 상반기 대외무역 증가의 주요인

□ 상반기 무역증가액(1,055.4억 달러)은 2002년도 전체 무역증가액(1,111.4억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는바, 월평균 무역증가액도 전년 동기대비 178.9억 달러 증가한 629.9억 달러에 달해 30% 이상 증가함.

- 수출증가액과 수입증가액은 각각 482.9억 달러와 572.3억 달러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10% 포인트 높은 40% 이상을 시현함.



□ 상반기 대외무역 증가의 주요인

- 최근 Euro화 對 달러화 가치가 1 : 1.19를 기록하는 등 2001년 7월이후 최근까지 Euro화 대비 美달러 가치가 40% 하락함으로써, 중국의 대외무역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함.
- o 특히 美달러에 페그되어 있는 인민폐환율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중국의 對EU 수출이 대폭 증가(48.3%)함.

- 중국의 관세인하 확대 및 일부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른 무역환경 개선으로, 중국으로의 제조업 이전이 증가, 그에 수반된 가공무역 및 수입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o 중국의 2003년 평균관세율은 11.5%로, 2002년 12.7%보다 1.2% 포인트 인하되었으며, 전기·기계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도 1997년 109종에서 2002년 22종으로 80% 감소함.
- 미·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원유, 철강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으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함.
- o 상반기 원유 수입증가액은 54.4억 달러에 달하고, 철강, 천연고무, 플라스틱 등의 수입증가액도 54.1억 달러에 달함.
- 중국 기업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크게 제고됨으로써 사스로부터의 영향이 점차 완화됨.
- o 사스로 인한 기업의 정상적인 교역활동 곤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수급상황은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음.

3. 주요 교역국별 및 무역형태별 현황

- 상반기 중국 전체 무역·수출·수입에서 각각 45.9%·51.6%·40.2%를 차지하는 미·일·EU 등 3대 교역국들과의 무역액이 1,728.1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38.0% 증가하였음. 그 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35.5%(981.8억 달러)와 41.6%(746.3억 달러) 증가함(표-1 참조).
- 중국과 3대 교역국간 무역증가액, 수출증가액, 수입증가액은 전년대비 각각 475.7억 달러, 256.8억 달러, 218.9억 달러를 기록, 상반기 전체 무역증가액에서 각각 45.1%, 53.2%, 38.3%의 비중을 차지함.
- 또한, 10대 교역국과의 무역액도 크게 증가(36.0%)하여 3,156.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출과 수입도 각각 33.1%와 39.5% 증가한 1,646.0억 달러와 1,510.7

억 달러를 기록함.

<표-1> 최근 중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

국가/지역	무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2	2003 상반기	2002	2003 상반기	2002	2003 상반기	2002	2003 상반기
전체 합계	6,207.7 (21.8)	3,761.4 (39.0)	3,255.7 (22.3)	1,903.2 (34.0)	2,952.0 (21.2)	1,858.2 (44.5)	303.6	45.0
일본	1,019.1 (16.2)	609.1 (36.1)	484.4 (7.8)	271.0 (25.4)	534.7 (25.0)	338.0 (46.1)	-50.3	-67.0
미국	971.8 (20.8)	564.0 (34.4)	699.5 (28.9)	399.3 (33.7)	272.3 (3.9)	164.7 (36.1)	427.2	234.5
E U	867.5 (13.2)	555.1 (44.2)	482.1 (17.9)	311.5 (48.3)	385.4 (7.9)	243.6 (39.3)	96.7	68.0
3大 교역국 소계	2,858.4 (16.8)	1,728.1 (38.0)	1,666.0 (18.9)	981.8 (35.5)	1,192.4 (13.9)	746.3 (41.6)	473.6	235.5
3大 교역국 비중(%)	46.1	45.9	51.2	51.59	40.4	40.2		
홍콩	692.1 (23.7)	380.9 (23.1)	584.7 (25.6)	327.4 (25.5)	107.4 (14.0)	53.5 (10.1)	477.3	274.0
아세안	547.7 (31.7)	342.4 (45.3)	235.7 (28.2)	137.7 (32.4)	312.0 (34.4)	204.7 (55.5)	-76.3	-67.0
한국	413.7 (22.8)	274.7 (44.1)	155.0 (23.8)	86.8 (27.0)	258.7 (22.2)	187.9 (53.7)	-103.7	-101.0
대만	446.5 (38.1)	256.5 (30.6)	65.9 (31.7)	39.9 (42.3)	380.6 (39.2)	216.6 (28.7)	-314.7	-176.7
러시아	119.3 (11.8)	68.1 (24.8)	35.2 (29.9)	21.0 (60.9)	84.1 (5.6)	47.1 (13.4)	-48.9	-26.0
호주	104.4 (16.0)	60.5 (31.9)	45.9 (28.5)	26.2 (37.7)	58.5 (7.8)	34.2 (27.8)	-12.6	-8.0
캐나다	79.4 (7.6)	45.7 (27.1)	43.1 (28.7)	25.2 (32.7)	36.3 (-10.0)	20.5 (20.9)	6.8	4.7
10大 교역국 합계	5,261.5 (20.1)	3,156.7 (36.0)	2,831.5 (21.9)	1,646.0 (33.1)	2,430.0 (19.6)	1,510.7 (39.5)	401.5	135.7
10大 교역국 비중(%)	84.8	83.9	87.0	86.5	82.3	81.3		
기타	946.2 (27.7)	604.7 (56.8)	424.2 (25.1)	257.2 (40.4)	522 (30.0)	347.6 (71.4)	-97.8	-90.4

주 : 1) 국가별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총무역액 順임.

2) ()안의 숫자는 증감율임(%).

3) 3大 및 10大 교역국 비중은 중국의 전체 무역·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國際商報」(2003.7.21).

□ 무역형태별로는 일반무역이 45.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가공무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함.

- 상반기 일반무역액은 1,684.1억 달러, 그 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812.6억 달러 (36.5%)와 871.6억 달러(54.4%)를 기록함.
- o 일반무역의 증가액은 전체 무역증가액에서 49.8%를 차지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의 증가액도 전체 수출입 증가액에서 각각 45.0%와 53.8%를 차지함.

- 가공무역은 31.5% 증가한 1,739.1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4%(1,034.3억 달러)와 31.5%(704.9억 달러) 증가함.
- o 가공무역의 증가액은 전체 무역증가액의 39.4%, 수출과 수입의 증가액은 전체 수출입 증가액에서 각각 51.2%와 29.4%를 차지함.

- 수출기업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국유기업의 무역증가액이 전체 무역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자기업의 무역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상반기 국유기업 무역액은 23.5% 증가한 1,323.0억 달러이며, 그 중 수출이 639.8억 달러, 수입이 683.3억 달러로, 각각 15.6%와 32.1% 증가함.
- o 상반기 국유기업 무역증가액이 전체 무역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전년동기보다 15.2%포인트 높아졌음. 그 중에서 수출과 수입증가액이 전체 수출입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7%와 29.0%로 전년동기보다 8.4%포인트, 15%포인트 높아졌음.

- 상반기 외자기업의 무역액은 43.3% 증가한 2,033.9억 달러이며, 그 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1,025.0억 달러와 1,009.0억 달러로 39.6%와 47.3% 증가함.

- 상반기 민영기업의 무역액은 404.5억 달러(88.0% 증가), 그 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238.5억 달러(81.0% 증가)와 166.0억 달러(99.1% 증가)로 대폭 증가함.

- 상반기 무역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수출입 상품구조의 고도화로 전기·기계 및 하이테크 제품의 무역규모가 급증하였다는 점임.

- 상반기 전기·기계제품의 무역규모는 45.2% 증가한 1,944.9억 달러로 전체 무역 증가액의 51.7%를 차지함. 그 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41.5%(962.9억 달러)와 49.1%(982.0억 달러)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6%와 52.7%를 기록함.

4. 하반기 전망

- 중국의 올 하반기 무역은 사스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수출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높은 성장이 예상됨.
 - 야오징웬(姚景源)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하반기 들어 본격화될 사스의 영향이 연말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만큼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하반기 월평균 무역액은 상반기보다 높은 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금년의 총무역액은 2002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에 사스로 인해 수출주문이 다소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연해지역의 대외무역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며 전자상거래·전자업무처리시스템 확산도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하반기 들어 이라크의 원유수출이 재개되어 원유 및 관련제품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흑자도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나, 금년 전체로는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작년 하반기의 기준치가 높아 금년 하반기의 무역증가율은 상반기의 그것에 훨씬 못미치는 20% 정도가 될 것임.
- 중국의 3대 교역국인 미·일·EU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도 중국과 3대 교역국간 무역액도 각각 1,100억 달러, 1,200억 달러, 1,100억 달러에 달해, 모두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美달러 가치 하락이 美달러에 페그된 인민폐 가치의 평가절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중·EU간 무역액이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02년 상반기

34.7억 달러에 달했던 중·EU간 무역액과 중·미간 무역액 격차가 금년 상반기에는 8.9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 한편, 날로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3大 교역국간의 무역마찰은 내년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바, 특히 2002년 기준 對中 무역적자가 1,031억 달러에 달한 미국은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 o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금년에 중국산 칼라TV에 반덤핑 조치를 취함으로써 5~6억 달러의 중구축 손실이 예상된다.
 - o EU도 올해 초 중국산 의류, 방직물, 전기·기계제품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고 각종 환경 관련 법안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중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의 인상과 내년중 GSP 폐지를 예정하고 있어, 對EU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 o 일본도 최근 들어 유행성 급성전염병을 이유로 중국산 육류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동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잦은 세이프가드 발동과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 등으로 중국의 對日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금년도 무역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계경기가 다소 침체되더라도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최종 소비재와 원자재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리스크 회피를 위해 해외투자자들이 엔화나 유러화를 대량 매입할 경우,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인민폐 가치의 간접적인 하락은 중국의 수출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